

## 서울高層建物觀

한국 펜 · 클럽 위원장

白 · 鐵



근년에 와서 정부의近代化정책의 진행에 따라서·우리社會의 여러가지面相이 놀랄만치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이는것이都市의建設相이요, 그 도시중에서도 특히 서울거리의 변모란 실로 눈을 부비고 다시 보아도 옛날의 서울거리로 알아볼수없는 새서울 거리가 되었다. 桑田碧海라는 말이 있지만 10년전의 앵도밭이나 논밭이던것이 거리의 중심지로 된 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서울 거리가 변한것은 근래 10년내외 그러니까 지난 60년대의 변모상이다.

서울거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한마디로해서 도로가 넓어지고 개천이 복개되어 메인스트림이 되고, 고가-도로가 공중에 걸리고 하는 일들로서 온 도시계획이 바뀌어 진 것이다.

그런데 이 서울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진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이는 특점은 근년 수년간에 갑자기高層建物이 깜짝 놀래리만치 정말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솟아난 풍경이다. 한 2년 전에 나는 친구들과 같이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서 주위의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거기만을 보고있으면 마치 미국의 어느 시골도시에 와있는것 같다는 인상

을 이야기 한 일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와서는 서울거리의 어딜 가서보거나 그러한 외국도시의 인상을 받게된것이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고층건물들이 저렇게 솟은 모양은 미국의 한 도시의 모습을 방불케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작년 여름에 내가 주재하는 국제 P.E.N. 클럽 한국 본부가 주체가 되여 제37차 세계작가회의를 서울서 개최했을때에 먼저온 구미의 대표들이 들어와서 모두 이 서울거리의近代相에 대하여 크게 놀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중의 구라파 족의 한 대표는 내게다가 서울거리의 인상을 말하면서 「제2의 뉴욕」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세아의 뉴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 말들을 들을 적마다 내 느낌은 그들이 다 이 고층건물들의 현대도시상을 잘보고 하는 호의적인 비평인 것 같았다. 그점에선 우선 국제회의를 주최한 우리들로서 우쭐하게 느껴졌다. 「그대들이 한국에 올때까지는 한국에는 현대적인 호텔하나 똑똑한것이 없을줄 알고 왔겠지만 자 봐라, 이렇게 거리전체가 현대도시가 아니냐,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층건물이 많이 있는 도시는 구라파에선 찾어보기 힘들것이다」하고 자부하고 싶기까지 했다.

어떻든 이렇게 서울거리가 고층건물로써 새단장을 하고 근대도시로 나선것은 좋은일이요 한국의 건설상이요 민족의 전진상이라고 보아서 기쁜일이요 경아할 일이 아닐수 없다. 그만치 이점에 대해선 현정부의 계획정책과 건설과업이 큰 성과를 거둔 일면이라고 평가하는것이 국민의 일치된 견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의 고층건물식의 도시건설상에 대하여 모든 점에서 다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보는 의미는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 현대식 건설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분이 비판적... 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立場일 것이다. 그리고 비판을 할

것이 있다면 때가 늦기전에 여론을 일으켜서 그방향을 수정시키는 것이 옳바른 현실참여의 뜻이 될 것이다.

문제를 다시 제안을 한다면 오늘 우리 눈 앞에 선 고층건물의 文化性에 대한 이야기이다. 建築은 하나의 文化요 엄연한 예술의 표현이다. 그저 세워지면 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文化性이 있게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다. 가령 먼저 인용한 외국문화인들의 서울行象評같은 것인데 「제二의 뉴욕」「아세아의 뉴욕」이란 평구에는 두개에 다 「뉴욕」이란 미국도시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뉴욕」에다가 비긴다는 것은 얼른 들으면 서울近代相을 격찬하는 말같이도 들리지만 또한 편

생각해보면 어딘지 남의 도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냐. 「뉴욕」의 이미테이션, 그 亞流같은仰象이라는 비꼬아하는 말일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현대도시라고 할때에 그 일반 특징이 반드시 고층건물의 도시란 뜻은 되지 않는 것같다. 고층건물이 서는 地質의 조건도 있겠지만 대체로 구라파의 도시들의 경우는 모두가 전통적인 전물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보통 三, 四층의 전물들이 고작이지 그렇게 높은 전물을 잘 볼 수 없다. 내가 西伯林에 들어가서도 느낀 것인데 전쟁때문에 파괴된 뒤에 새로 서는 전물들도 「유로파」라는 백화점 전물이 하나 二층으로 세워졌을 뿐 딴것들은 모두가 三, 四층 정도로 되여 있었다.

그렇게 보면 고층건물의 도시란 주로 미국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곧 서울의 고층건물거리가 뉴욕의 아류같은 인상을 주게된다. 이것은 문화 예술의 독창성에서 볼 때는 그렇게 명예스러운 평가는 못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층건물은 물론 좋다고 보지만 그 고층건물도 어딘지 韓國의 文化의傳統을 자랑으로 삼고있는 것들이 되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고층건물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다니다가 그때마다 유치한 인상을 가질 수 없는 기념탑으로서 제二漢江橋를 건너다가 그 무슨

유엔軍참전기념탑의 門을 드나들때의 감상이다. 外國사람들이 서울수도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관문이 하필이면 저래야 할까 하는 생각, 차라리 南大門같은 전통적인 관문이면 더 한국다운 인상을 안겨주지 않을까하는 감상이 든다는 것이다. 다른 고층건물들에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미국식의 것을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어느 한구석, 가령 지붕에 청기와라도 올려서 현대식양복에 갓을 써우는 식이라도 좋으니 무슨 전통적인 것을 가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차츰 우리것다운 고층건물의 서울도시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니와 내가 우리 서울의 고층 전물상을 무조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人口分布처럼 서울에 집중하는 현상에선 고층건물은 인구정책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방향일 것이다. 요는 더 본질적인 뜻에서 생각할 때에 먼저 말하다시피 건축은 예술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한국의 전물이 되야 하기 때문에 그저 실재적인 원료에서만 고료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문화를 창조하는 창의성에서 반성되고 재고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다. 전진하다가 가끔 뒤틀어다보고 반성을 해보고 하는 일이 정말 원대한 시야에서 볼 때에 올바르게 건설의 길을 걸어가는 뜻이 될것이다.

